

노동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pp.29~6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 덕 호\*\*

본 연구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성향점수매칭(PSM) 후 두 집단 간 차이분석과 조절효과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동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에서는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지가 높고 취업상담과 알선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처럼 노동시장이 분절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질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핵심용어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고용정책,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성향점수매칭

논문접수일: 2019년 10월 10일, 심사의뢰일: 2019년 10월 17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4일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2019.2)의 일부와 『2019년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수정·보완하였다.

\*\* 고용노동부 대변인(locodoco@hanmail.net)

## I. 머리말 : 문제 제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2003년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단기대책과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대책을 포괄하는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이래 많은 대책들을 수립하였으며, 그때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중구조,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은 Schmid(1998)의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정책의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 ALMPs)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청년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직접일자리아니나 고용보조금사업은 대개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적지 않은 사중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LO, 2015; OECD, 2014). OECD 25개국을 대상으로 1985~2009년 실시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별 고용률 기여효과 분석에서도 취업상담과 알선을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가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3).

한국은 초기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과정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는 드물며, 특히, 일자리의 질적 지표인 고용형태, 임금수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과 문제인식하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일자리의

양적 지표인 취업과 질적 지표인 고용형태, 임금수준, 일자리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sup>1)</sup>

### 1. 노동시장 성과의 개념과 이론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여부와 취업한 일자리의 질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Sewell & Hausser, 1975; Lin et al, 1981).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임금이 높으며, 사회적 지위나 만족도가 높으면 좋은 일자리라 말한다(방하남·이상호, 2006; 송영남, 2010; Clark, 1998; Jencks et al., 1988). 따라서 노동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양적 측면에서는 취업여부를, 질적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직장만족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취업은 직업을 가진다는 의미이지만, 통계를 작성할 때 취업자는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취업자 개념을 ILO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통계청,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안정성 여부는 종사상 지위 또는 고용형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을,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을 고용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최문경·이기엽, 2008).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고용형태별 분류를 사용하였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임금수준은 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의 월평균 근로소득이다. 일

1) 노동시장 성과의 개념과 이론, 결정요인 등에 대해서는 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청년 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능력개발연구』(제22권 제3호)에 게재된 『대졸 청년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성과 분석』의 취업성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재정리하였다.

자리 만족이란 자신이 근무하는 일자리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상태와 근무지향성을 지칭한다(방하남 · 김상욱, 2009). 일자리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가정배경 등이 있으며(김상욱 · 유홍준, 2002; 방하남 · 김상욱, 2009),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사업체의 규모나 위치, 고용형태, 일의 적합도, 임금, 고용안정, 근무환경 등이 있다(이영면, 2005; 김성훈, 2007; 배화숙 · 이인숙, 2008)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 등의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할수록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말한다(Schultz, 1961; Lynch, 1989; Acemoglu and Pischke, 1999). 이에 반해,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단지 능력을 판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과 임금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교육에 의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다는 신호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Spencer, 1973). 지위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Theory)은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지위와 직업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황여정 · 백병부, 2008; 김종성, 2013). 노동시장분절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상호 배타적이고 노동시장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두 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과 제공받는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Marcotte, 2000; Finegold et al., 2005; Koske et al., 2012). 즉,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에는 고용안정, 높은 임금, 승진기회, 직업훈련 등을 보장받는 직업군들이 존재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한 것들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행노동시장이론(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은 구직자와 실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90년대에 들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방법으로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행노동시장이론은 그 논거를 제공하였다(Schmid, 1998). Schmid(1998)는 개인이 노동시장 이행의 여러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실업, 소득감소, 숙련부족, 일자리 정보 부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 2.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인적자본이론은 교육과 훈련을, 시장신호이론은 출신 학교의 위세를, 지위획득이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노동시장분절이론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격차와 차별을,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제 이론을 토대로 정리하면, 개인속성, 학교특성, 가족배경, 정부정책 등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속성의 경우, 우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더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금재호, 2001; 채구묵, 2007; 이시균·윤정향, 2008; Donna, 2007). 연령은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력의 증가로 인해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지만(이규용·김용현, 2003; 강은영, 2012; 박환보, 2012),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채구묵, 2007; 채창균·김태기, 2009). 혼인은 특히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결혼 후 출산은 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가정 내 역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할 것이라는 사회 관념 때문이다(김태홍·김중숙, 2002; 민현주·임희정, 2009; Moen & Smith, 1986).

학교특성 요인으로는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학교 명성, 전공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지위획득을 하고 있으며(김희삼·이삼호, 2007; 박환보, 2011), 한국에서는 학교의 위치와 명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서울 소재 대학의 졸업생이 지방 대학 졸업생보다 취업확률이 높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이며 임금도 높으며

(이규용 · 김용현, 2003; 류장수, 2003; 오호영, 2007), 명문대 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다(류장수, 2003; 이주호 외, 2003; 오호영, 2007). 전공의 경우, 이공계열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교육계열보다 상용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고, 임금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유동형 · 민현주, 2012), 공학계열 전공자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직업을 획득할 확률이 높다(김창환 · 김형석, 2006).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주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부모 학력은 노동시장의 성과에 정(+)의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나(방하남 · 김기현, 2001; 황여정 · 백병부, 2008; 이자영 · 연보라, 2012), 반대로 부(-)의 효과를 주거나(장기영, 2008),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남기곤, 2009; 이현성, 2010)도 있다. 그러나 부(-)의 효과를 주는 이유는 부모 학력이 높은 자녀의 취업확률이 낮다기보다 상급학교나 유학 때문에 취업을 유예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장기영, 2008).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장기영, 2008; 김정숙, 2009; 이자영 · 연보라, 2012). 한국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 개인이 직업을 얻기까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과 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김종성 · 이병훈, 2014).

### 3.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2009년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형 고용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2011년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과 고령자의 뉴스타트(new start) 프로그램과 디딤돌 일자리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도입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1만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36만 명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예산도 2009년 104억 원에서 2015년 3,135억 원으로 6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원대상의 규모 확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력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2010년 총 55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기 시작하였

으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210개의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었다.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16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중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직업훈련 중심의 2단계 프로그램에서 일 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화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되었다.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는 2016년 192,728명이 참여하여 취업률 72.7%, 1년 후 고용유지율은 46.6%를 보였다.

〈표 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현황

(단위: 명, %)

	목표인원	참여인원	취업자수	취업률	고용유지율			
					3월	6월	1년	
2009	10,000	9,091	1,094	24.2	73.3	43.6	29.2	
2010	20,000	25,230	14,927	60.4	76.8	60.1	38.5	
2011	50,000	63,967	31,821	50.9	75.5	59.4	39.7	
2012	전 체	226,000	143,249	70,868	50.7	75.8	60.0	41.4
	저소득층	70,000	76,418	37,338	50.2	76.0	60.1	39.9
	청년층	51,000	41,573	22,659	55.3	76.1	60.4	44.1
	중장년층	105,000	25,258	10,871	44.4	74.1	58.6	40.4
2013	전 체	230,000	208,775	115,026	55.2	76.7	60.8	42.6
	저소득층	100,000	102,721	52,573	51.3	77.3	61.5	41.3
	청년층	130,000	70,034	43,584	62.3	76.6	60.6	44.2
	중장년층	36,020	18,869	18,869	52.4	75.2	59.3	42.4
2014	전 체	250,000	193,745	116,250	60.1	77.1	61.4	43.5
	저소득층	130,000	106,986	61,961	58.1	77.2	61.7	42.0
	청년층	120,000	68,262	43,425	63.7	77.2	61.4	45.5
	장년층	18,497	10,864	10,864	58.8	75.4	59.7	43.7
2015	전 체	360,000	295,402	188,200	63.8	77.3	61.9	44.9
	저소득층	180,000	137,331	78,900	57.6	76.8	61.7	43.0
	청년층	130,000	133,472	93,809	70.3	77.8	62.3	46.6
	장년층	50,000	24,599	15,491	63.0	75.9	60.3	43.7
2016	전 체	340,000	366,152	223,542	67.9	77.6	62.2	46.0
	저소득층	145,000	145,363	78,481	61.3	77.3	62.4	44.8
	청년층	150,000	192,728	127,957	72.7	77.9	62.1	46.6
	장년층	45,000	28,061	17,104	67.7	76.5	61.8	46.7

주: 취업률=취업자/종료자, 고용유지율=고용유지자/경과자.  
 자료: 고용노동부(2018).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프로그램 담당 인력에 비해 참여자 수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sup>2)</sup> 사업이 급속히 팽창하는 가운데도 담당할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관들이 대거 진입하여 사업을 수행해 오기도 하였다. 일부 준비가 덜 된 민간기관은 고용된 상담직원에게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면서도 관리대상을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잦은 이직과 프로그램 부실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업 규모의 확대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3단계 참여자에게 월 3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시 지표로 삼고 있는 취업률 산정방식도 구직자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즉, 사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취업률 산정 시, 기간에 상관없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도 취업률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관이 청년들을 질 높은 일자리로 알선하기보다는 우선 취업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 Ⅲ. 연구설계<sup>3)</sup>

#### 1. 분석모형과 자료

본 연구는 대졸 청년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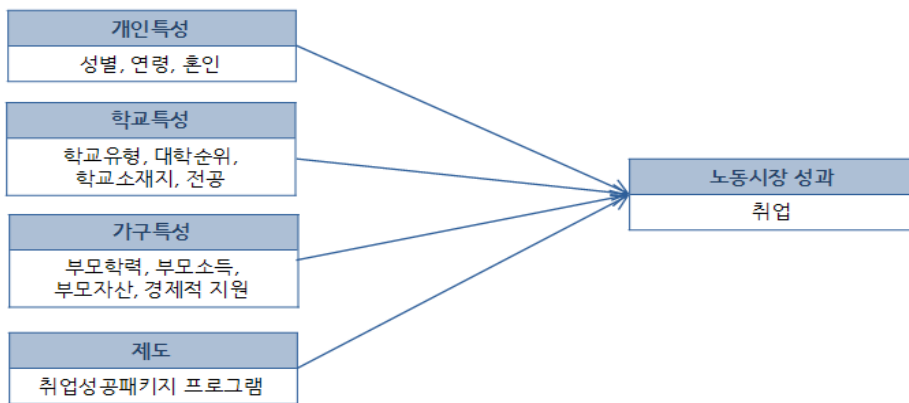
- 
- 2) 실증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 담당자, 민간위탁업체 관계자 등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 3) 분석모형과 자료, 변수의 구성은 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능력개발연구』(제22권 제3호)에 게재한 「대졸 청년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성과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함을 밝힌다.



표로 일자리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취업여부와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우선 노동시장 성과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취업여부는 이변량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의 개인속성, 부모의 학력, 소득, 자산, 경제적 지원 등의 가구특성, 학교의 유형, 소재지, 명성, 전공 등의 학교특성, 그리고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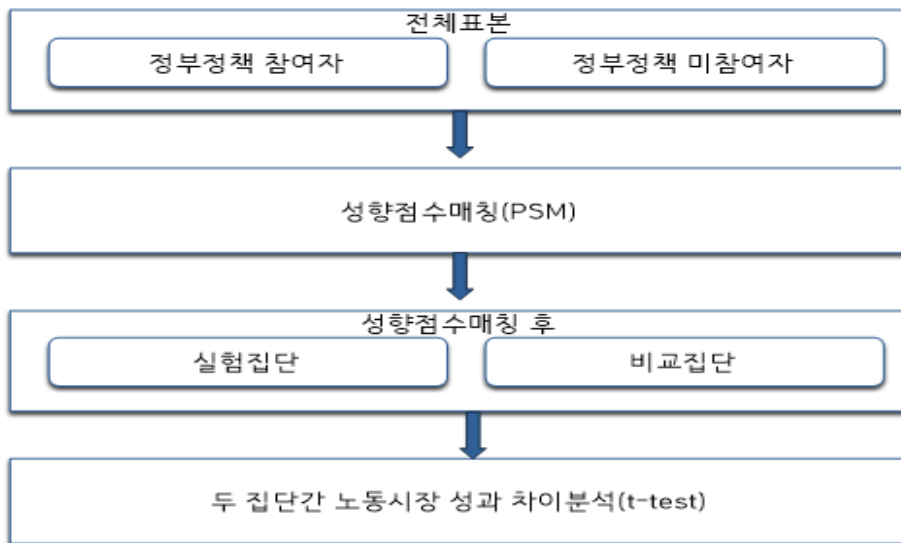
[그림 1]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 성과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두 독립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두 집단 간 차이분석에서 주의할 것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정책변수를 제외한 모든 제3의 변수들이 동일하지 않으며, 무작위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표본의 선택편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순수한 프로그램 참여 효과 분석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Campbell & Stanley, 1963). 이러한 표본선택편의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성향을 유사하게 맞춰 주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매

칭이란 변인들의 속성이 유사한 개체끼리 짝을 맞추는 작업으로 순수 실험의 무작위선택에 근접한 표본의 추출을 행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각 관측치마다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갖는 관측치를 매칭함으로써 비교집단을 구성한다(Rosenbaum & Rubin, 1983).

[그림 2] 노동시장 성과 차이분석 흐름도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두 가지 가정을 만족시킬 때 충족된다. 먼저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으로, 제3의 변수들(Xi)을 충분히 통제한다면 프로그램 참여 (Ti)와 취업성과(Yi)가 서로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즉 이 성과변수와 관련한 차이는 관찰된 변수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고 관찰되지 않은 어떤 특성도 반응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Y_0, Y_1) \perp T | X$$

다른 한 가지는 공통영역의 가정으로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관찰 값으로부터 계산된 성향점수의 분포는 0과 1 사이에서 중첩되어 나타난 영역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향점수의 공통영역을 점검하여 실험집단과 매칭되지 않은 비교집단 참여자들을 제거한다.

$$0 < P(T=1|X) < 1$$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를 두 집단의 공통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관측 특성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프로빗(Probit)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대상들이 실험집단에 속할 확률인 성향점수를 추정하였으며, 매칭방법으로 Nearest Neighbor(NN) Matching을 선택하였다. 종속변수를 취업여부로 설정하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두 집단의 속성 간에 차이를 없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인 취업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는 전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3~4%를 선정하여 취업, 직업 및 직장, 경력개발 등의 이동경로를 조사한 자료이다(신종각 외, 2017). 2016년 조사는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지는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조사 시점이 졸업 후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졸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에 대한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2009년에 도입된 이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전병유 외(2012)는 취업성공패키지 DB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연결시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고용보험 일자리 취업성과를 비교한 결과, 사업에 참여 신청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로별로는 3단계 알선이 포함될 경우 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반면, 집단상담이나 직업훈련은 장기에 있어서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는 고용센터가 민간위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를 보이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과분석 시에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현·임희정(2013)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집단과 도중에 중단한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 중단한 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취업이라는 노동시장 성과의 양적 지표만을 다루고 있어 질적 지표인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만족도 등의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DB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격변경이력 DB를 결합하여 참여자 유형별 취업성적을 분석한 이병희 외(2014)는 인적 특성과 취업능력 및 의지 등을 통제하면, 청년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취업성고가 높지 않으며, 취업능력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참여자의 취업성고가 저소득층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용유지율, 150만 원 이상 일자리 취득률 등 고용의 질을 반영한 성과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병희 외(2016)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추진실태를 과정 평가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한 결과, 상당수 청년 재학생에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최적의 프로그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대학 재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역량이 높거나 눈높이가 달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필요한 개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이병희 외(20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졸 이상 미취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취업률이 높으며, 집단상담은 취업률을 높이는 반면, 실업자 훈련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여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직장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성과로 대졸 청년이 졸업 후 18개월<sup>4)</sup>이 지난 시점에서의 취업여부,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취업여부는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면 1의 값을,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면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고용형태는 응답문항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준거 집단으로 하여 1의 값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임금수준은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첫 임금으로, 단위는 만 원이고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직장만족도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 속성으로 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구특성으로 부모 학력, 부모 소득, 부모 자산, 경제적 지원여부, 학교특성으로 대학유형, 대학순위, 대학소재지, 전공 등을 사용하였다. 대학순위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학교 명이 표시된 데이터를 받아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 결과를 토대로 10위권 단위로 순위를 매겨 5단계로 그룹핑하고 순차적으로 값을 부여하였다. 즉, 1~10위는 5의 값을, 11~20위는 4, 21~30위는 3, 31~40위는 2, 40위 밖은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40위 밖과 같은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조절변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이며,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시기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고,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1의 값을,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각 변수의 유형과 구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이 연구의 분석자료인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의 조사대상이 대학 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는 사람이다.

〈표 2〉 변수의 구성

변수		유형	변수설명
종속 변수	노동시장 성과	취업여부	더미 취업=1, 미취업=0
		고용형태	더미 정규직=1, 비정규직=0
		임금수준	연속 LN(월평균임금)
		일자리 만족도	연속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조절 변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더미 참여=1, 미참여=0	
독립 변수	개인배경	성별	더미 남성=1, 여성=0
		연령	연속 25세 미만=1, 25~29세=2, 30~34세=3
		혼인여부	더미 미혼=1, 기혼=0
	가족배경	부의 학력	연속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 =4, 전문대=5, 대학=6, 대학원=7
		모의 학력	연속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 =4, 전문대=5, 대학=6, 대학원=7
		부모소득	연속 200만 원 미만=1, 400만 원 미만=2, 700만 원 미만=3, 1,000만 원 미만=4, 1,000만 원 이상=5
		부모자산	연속 5천만 원 미만=1, 5천만 원~1억 5천만 원 미만=2 1억 5천만 원~3억 원 미만=3, 3억 원~5억 원 미만=4, 5억 원~10억 원 미만=5, 10억 원 이상=6
		경제적지원	더미 지원받음=1, 지원안받음=0
		학교특성	학교유형
	대학소재지		더미 수도권=1, 비수도권=0
	대학순위		연속 1~10위=5, 11~20위=4, 21~30위=3 31~40위=2, 40위 밖=1
	전공		더미 인문=1, 사회=2, 교육=3, 공학=4, 자연=5, 의학=6, 예체능=7

## IV. 분석결과

### 1.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16년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조사시점이 졸업 후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2016년에 조사한 자료의 대상은 2014년도 8월 졸업생과 2015년 2월 졸업생이다. 분석대상은 총 17,485명으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성별	남	9,193(52.6)
	여	8,292(47.4)
연령	25세 미만	6,677(38.2)
	25세 이상 30세 미만	10,203(58.4)
	31세 이상 35세 미만	605( 3.5)
혼인여부	미혼	16,971(97.1)
	기혼	514( 2.9)
전 체		17,485(100)

응답자의 학교특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17,485명 중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2,998명으로 74.3%를 차지하였으며, 전공별로는 공학계열 28.9%, 사회계열 19.7%, 자연계열 14.3%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3.3%, 비수도권이 56.7%의 비중을 보였으며, 학교순위별 비중

은 1~10위 대학 8.2%, 11~20위 대학 13.2%, 21~30위 대학 7.2%, 31~40위 대학 7.0%, 40위 밖의 대학 64.4%로 나타났는데, 40위 밖의 대학 비중이 높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전문대를 40위 밖의 대학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표 4〉 응답자의 학교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빈도(%)
학교유형	4년제대학=1	12,998(74.3)
	전문대=0	4,487(25.7)
전공	인문	1,849(10.6)
	사회	3,452(19.7)
	교육	1,351( 7.7)
	공학	5,059(28.9)
	자연	2,495(14.3)
	의약	1,202( 6.9)
	예체능	2,077(11.9)
학교소재지	수도권=1	7,577(43.3)
	비수도권=0	9,908(56.7)
학교순위	1~10위	1,430( 8.2)
	11~20위	2,308(13.2)
	21~30위	1,263( 7.2)
	31~40위	1,229( 7.0)
	40위 밖	11,255(64.4)
전 체		17,485(100)

가구특성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중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졸 44.3%, 대학교졸 32.9%, 대학원졸 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35.1%, 200만 원 미만 12.4% 순이었다. 부모의 자산규모는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31.3%로 가장 높았고, 가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18.8%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가구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빈도(%)
부 학력	무학=1	19( 0.1)
	초등학교=2	525( 3.1)
	중학교=3	1,073( 6.4)
	고등학교=4	7,436(44.3)
	전문대=5	1,049( 6.2)
	대학=6	5,524(32.9)
	대학원=7	1,177( 7.0)
모 학력	무학=1	26( 0.2)
	초등학교=2	469( 2.8)
	중학교=3	1,416( 8.4)
	고등학교=4	9,744(57.7)
	전문대=5	954( 5.6)
	대학=6	3,776(22.4)
	대학원=7	508( 3.0)
부모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1	2,002(12.4)
	400만 원 미만=2	6,940(42.9)
	700만 원 미만=3	5,681(35.1)
	1,000만 원 미만=4	923( 5.7)
	1,000만 원 이상=5	646( 4.0)
부모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1	1,862(11.6)
	1억 5천만 원 미만=2	2,970(18.6)
	3억 원 미만=3	5,000(31.3)
	5억 원 미만=4	3,656(22.9)
	10억 원 미만=5	1,822(11.4)
	10억 원 이상=6	683( 4.3)
경제적 지원	예=1	3,273(18.8)
	아니오=0	14,212(81.2)
전 체		17,485(100)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해서는 전체 분석대상 17,485명의 69.6%인 12,178명이 취업 중이었으며, 이들 중 고용형태가 정규적인 경우가 9,063명으로 74.4%를 차지하였다. 취업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평균 202.70만 원이었고, 직장만족도는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3.56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응답자의 노동시장 성과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 %, 빈도(명))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69.6%	12,178
고용형태	정규직=1, 비정규직=0	74.4%	9,063
임금수준	현재 일자리소득	202.70	90.969
	ln(현재 일자리소득)	5.2166	0.47084
직장만족도	매우 만족~매우 불만족: 5~1	3.56	0.832

분석대상 17,485명의 30.8%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을 인지한 청년 중 16.6%가 참여경험을 가지고 있었다(표 7 참조).

〈표 7〉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활용도

		빈도(%)
인지도 (N=17,485)	있다	5,394(30.8)
	없다	12,091(69.2)
관심도 (N=5,394)	전혀 관심 없다	428( 7.9)
	관심 없다	1,197(22.2)
	보통이다	1,888(35.0)
	관심 있다	1,511(28.0)
	매우 관심 있다	370( 6.9)
참여경험 (N=5,394)	있다	897(16.6)
	없다	4,497(83.4)

## 2. 취업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의 1.303배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병유 외(2012)와 정영현·임희정(2013)의 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취업의지가 높고 취업상담과 알선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34세에 비해, 25세 미만의 취업 가

능성은 0.443배로 낮아지고, 25~29세의 취업 가능성은 0.618배로 낮아졌다. 남성은 여성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1.355배로 높았고, 미혼은 기혼보다 취업 가능성이 0.540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변수명		N=17,485		
		B	S.E	Exp(B)
상수항		-1.483***	.331	.227
개인 속 성	연령(25세 미만)	-.813***	.239	.443
	연령(30세 미만)	-.481**	.224	.618
	연령(35세 미만)	-	-	-
	성별	.304***	.091	1.355
	결혼여부	-.617***	.213	.540
학 교 특 성	대학순위	-.060*	.031	.941
	전공(인문)	-.020	.145	.980
	전공(사회)	.160	.132	1.174
	전공(교육)	.450**	.205	1.568
	전공(공학)	.168	.134	1.183
	전공(자연)	-.117	.144	.890
	전공(의약)	.381*	.212	1.464
	전공(예체)	-	-	-
	학교유형	.039	.105	1.040
학교소재지	.008	.078	1.008	
가 구 특 성	부 학력	-.054	.038	.947
	모 학력	-.079*	.042	.924
	부모소득	.144***	.048	1.155
	부모자산	.060*	.033	1.062
	경제적 지원	3.142***	.099	23.15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265***	.097	1.303
Cox & Snell R <sup>2</sup>		.276		
Nagelkerke R <sup>2</sup>		.381		
-2로그 우도		4674.352		
Hosmer & Lemeshow		.090		

주: \*\*\* p<0.01, \*\* p<0.05, \* p<0.1.

학교특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순위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은 유의 확률  $p < 0.1$ 에서 0.941배로 낮아지고, 예체능계열에 비해 교육계열이 유의확률  $p < 0.05$  하에서 1.568배, 의약계열이 유의확률  $p < 0.1$  하에서 1.46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족배경과 관련해서는, 부모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부모 소득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1.155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의 취업 가능성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의 23.151배로 높아져 경제적 지원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

#### 가. 성향점수매칭(PSM) 결과

성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한 결과, 매칭 전에는 t-test에서 상당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매칭 후에는 대학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성향점수매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칭 전후 표본의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성향점수매칭 결과

변수			매칭 전			매칭 후		
			실험(%)	비교(%)	t값	실험(%)	비교(%)	t값
개인 속성	연령	25세 미만	39.5	38.1	-1.174	39.0	38.4	-.097
		30세 미만	58.1	58.5		58.3	59.3	
		35세 미만	2.5	3.4		2.7	2.3	
	성별	남	46.6	46.1	-.263	46.8	45.2	-.687
		여	53.4	53.9		53.2	54.8	
	결혼	미혼	98.7	97.3	-3.075***	98.7	98.8	.273
기혼		1.3	2.7	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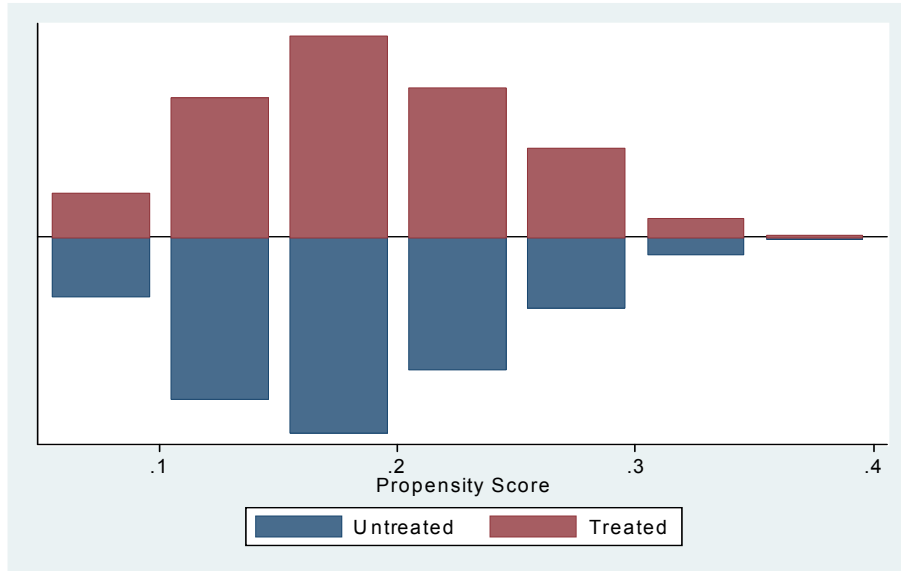
〈표 9〉의 계속

변수		매칭 전			매칭 후			
		실험(%)	비교(%)	t값	실험(%)	비교(%)	t값	
학 교 특 성	대 학 순 위	40위 밖	75.1	66.5	-6.810***	74.8	70.5	-2.757***
		31~40위	7.4	7.5		7.6	6.8	
		21~30위	6.0	7.5		6.0	7.5	
		11~20위	9.0	12.1		9.4	11.0	
		1~10위	2.5	6.5		2.3	4.2	
	전 공	인문	17.8	13.2	-.715	18.3	15.6	-.187
		사회	22.1	23.6		22.0	23.5	
		교육	1.4	5.8		1.6	4.2	
		공학	28.1	26.5		27.6	26.2	
		자연	13.9	14.4		13.8	13.7	
		의약	3.6	4.9		3.5	4.1	
	유 형	4년제	71.5	75.8	2.666***	72.6	75.6	1.506
		전문대	28.5	24.2		27.4	24.4	
	지 역	수도권	48.0	44.7		47.6	44.3	-1.404
		비수도권	52.0	55.3		52.4	55.7	
가 구 특 성	부 모 소 득	200만 미만	16.7	13.3	-1.811*	16.8	15.8	-1.066
		400만 미만	47.6	41.4		47.8	46.6	
		700만 미만	29.4	35.6		29.1	30.7	
		1천만 미만	4.3	5.8		4.1	4.5	
		1천만 이상	2.0	3.9		2.1	2.4	
	부 모 자 산	5천만 미만	22.1	12.3	-8.680***	22.0	19.3	-1.746*
		1.5억 미만	23.2	18.2		23.2	21.8	
		3억 미만	27.1	29.2		27.0	27.4	
		5억 미만	17.0	25.0		17.2	20.0	
		10억 미만	8.1	11.3		8.2	9.1	
지 원	예	21.5	20.7	-.495	22.1	21.0	-.586	
	아니오	78.5	79.3		77.9	79.0		
표본수		897명	4,497명	5,394	820명	1,083	1,903	

주: \*\*\* p<0.01, \*\* p<0.05, \* p<0.1.

한편, 매칭 전 취업여부에 응답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897명, 비참여자는 4,497명으로 총 5,394명이었으나, 매칭을 실시하여 공통영역 밖에 위치하는 표본을 제외한 후 총 1,903명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820명,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이 1,083명이었으며, 매칭된 성향점 수분포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성향점수분포 그래프



#### 나.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차이 분석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고용형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졸 청년의 정규직 비중이 74.4%로, 대학 재학 중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에 종사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때문이며, 프로그램 참여자도 취업상담과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는 모두 유의확률  $p < 0.05$  하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에서 t값이 각각 -2.202, -2.494로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병희 외(2016)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역량이 높은 반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프로그램을 수료하더라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0〉 노동시장 성과차이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고용형태	1.28	1.29	.451	.454	-.269	.788
임금수준	5.11	5.17	.408	.489	-2.202**	.028
직장만족도	3.32	3.45	.937	.845	-2.494**	.013

주: \*\*\* p<0.01, \*\* p<0.05, \* p<0.1.

다. 다중회귀 분석과 조절효과 분석결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과 프로그램의 조절효과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가에 대한 검정을 위해 1단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Y=a+b_1 X$ )을 실시하고, 2단계로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Y=a+b_1 X+b_2 M$ )을 실시한 후, 3단계로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과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harma et al., 1981). 조절효과 분석 시 마지막 3단계에서 모두 다중공선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평균중심화값(Mean Centering)을 계산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시키고, 이를 가지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참여는 취업 후 임금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모형 1의 R<sup>2</sup>값이 .200에서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과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 3의 R<sup>2</sup>값이 .204로 증가하여 정(+)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표준 B	t	B	표준 B	t	B	표준 B	t
상수		4.201***		74.859	4.201***		74.867	4.169***		67.449
개인 속성	25세 미만	-	-	-	-	-	-	-	-	-
	25~29세	.072***	.077	3.768	.072***	.077	3.789	.077***	.082	3.702
	30~34세	.116***	.048	2.727	.116***	.048	2.728	.127***	.053	2.783
	성별	.130***	.141	7.231	.130***	.141	7.213	.137***	.149	7.046
결혼여부		-.182***	-.062	-3.869	-.180***	-.061	-3.830	-.173***	-.059	-3.529
대학 특성	대학순위	.028***	.080	4.499	.028***	.078	4.398	.031***	.086	4.564
	전공 인문	-	-	-	-	-	-	-	-	-
	전공 사회	.116***	.107	4.672	.115***	.105	4.592	.118***	.108	4.210
	전공 교육	.182***	.092	4.957	.177***	.090	4.813	.170***	.086	4.386
	전공 공학	.184***	.180	7.252	.182***	.177	7.147	.177***	.173	6.226
	전공 자연	.075***	.055	2.652	.073***	.054	2.586	.056*	.041	1.777
	전공 의약	.270***	.131	7.096	.267***	.130	7.000	.265***	.129	6.445
	전공 예체	.007	.005	.246	.005	.004	.173	-.008	-.006	-.256
	학교유형	.036*	.034	1.786	.037*	.035	1.818	.017	.016	.770
	학교지역	.028*	.030	1.829	.029*	.031	1.885	.027	.030	1.631
가구 특성	부 학력	-.007	-.019	-9.42	-.007	-.019	-9.31	-.005	-.015	-6.74
	모 학력	.013	.029	1.479	.012	.029	1.457	.015	.034	1.590
	부모소득	.043***	.086	4.636	.043***	.085	4.625	.046***	.091	4.568
	부모자산	.024***	.070	3.777	.024***	.068	3.650	.023***	.066	3.220
경제적지원		.567***	.283	17.896	.567***	.283	17.881	.584***	.292	16.801
취성패 참여					-.026	-.020	-1.271	.072	.056	.328
개인 속성 상호 작용	25세 미만							-	-	-
	25~29세							-.023	-.014	-.423
	30~34세							-.062	-.009	-.464
	성별							-.046	-.025	-.880
결혼여부								-.026	-.020	-.142
대학 특성 상호 작용	대학순위							-.019	-.029	-.967
	전공 인문							-	-	-
	전공 사회							-.040	-.016	-.634
	전공 교육							.072	.007	.394
	전공 공학							.010	.004	.159
	전공 자연							.082	.025	1.123
	전공 의약							-.022	-.004	-.188
	전공 예체							.083	.024	1.071
	학교유형							.121**	.084	2.155
	학교지역							-.002	-.001	-.044
가구 특성 상호 작용	부 학력							-.004	-.013	-.170
	모 학력							-.016	-.056	-.677
	부모소득							-.022	-.043	-.803
	부모자산							.007	.017	.385
경제적지원								.108	.022	1.261
R <sup>2</sup>		.200			.200			.204		
R <sup>2</sup> 변화량		.200			.000			.004		
F값변화량		45.113			1.616			.906		
Durbin-Watson					.795					

주: \*\*\* p<0.01, \*\* p<0.05, \* p<0.1.



2)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와 조절효과 분석에서도, 프로그램 참여는 직장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형 1의 R<sup>2</sup>값은 .029에서 모형 3의 R<sup>2</sup>값이 .041로 증가하는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 참조).

〈표 12〉 직장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표준B	t	B	표준B	t	B	표준 B	t
상수		3.543***		31.221	3.544***		27.680	3.456***		27.680
개인 속성	25세 미만	-	-	-	-	-	-	-	-	-
	25~29세	-.067*	-.038	-1.693	-.066*	-.039	-1.611	-.069	-.039	-1.611
	30~34세	.022	.005	.250	.022	.010	.495	.046	.010	.495
	성별	.127***	.073	3.428	.126***	.087	3.754	.150***	.087	3.754
	결혼여부	-.131	-.024	-1.347	-.125	-.031	-1.668	-.169*	-.031	-1.668
학교 특성	대학순위	.037***	.056	2.872	.035***	.046	2.235	.031**	.046	2.235
	진공 인문	-	-	-	-	-	-	-	-	-
	진공 사회	.048	.024	.938	.042	.017	.593	.034	.017	.593
	진공 교육	.407***	.110	5.377	.392***	.097	4.499	.359***	.097	4.499
	진공 공학	.075	.039	1.430	.067	.004	.139	.008	.004	.139
	진공 자연	.023	.009	.390	.017	-.017	-.673	-.043	-.017	-.673
	진공 의약	.141*	.037	1.810	.131*	.031	1.411	.119	.031	1.411
	진공 예체	.020	.007	.333	.013	.000	-.015	-.001	.000	-.015
	학교유형	.037	.019	.888	.039	.034	1.473	.067	.034	1.473
	학교지역	.029	.017	.921	.032	.025	1.274	.044	.025	1.274
가구 특성	부 학력	-.016	-.022	-1.025	-.016	-.031	-1.290	-.021	-.031	-1.290
	모 학력	.021	.026	1.193	.020	.052	2.196	.042**	.052	2.196
	부모소득	.060***	.063	3.120	.059***	.063	2.904	.060***	.063	2.904
	부모자산	.014	.021	1.040	.012	.006	.281	.004	.006	.281
	경제적지원	-.044	-.012	-.686	-.046	.000	.010	.001	.000	.010
취성패 참여					-.082	-.220	-1.169	-.529	-.220	-1.169
개인 속성 상호 작용	25세 미만							-	-	-
	25~29세							-.001	.000	-.011
	30~34세							-.206	-.017	-.778
	성별							-.125	-.036	-1.172
	결혼여부							.799**	.330	2.162

〈표 12〉의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표준B	t	B	표준B	t	B	표준 B	t
학교 특성 상호 작용	대학순위							.044	.035	1.076
	전공 인문							-	-	-
	전공 사회							.015	.003	.117
	전공 교육							.067	.003	.181
	전공 공학							.339**	.076	2.548
	전공 자연							.347**	.057	2.314
	전공 의약							-.023	-.002	-.095
	전공 예체							.064	.010	.400
	학교유형							-.191*	-.071	-1.660
	학교지역							-.100	-.030	-1.123
가구 특성 상호 작용	부 학력							.039	.078	.922
	모 학력							-.141***	-.259	-2.880
	부모소득							-.015	-.015	-.255
	부모자산							.048	.063	1.340
	경제적지원							.332*	.038	1.938
R <sup>2</sup>		.029			.030			.041		
R <sup>2</sup> 변화량		.029			.001			.011		
F 변화량		5.435			3.766			2.068		
Durbin-Watson					2.036					

주: \*\*\* p<0.01, \*\* p<0.05, \* p<0.1.

## V. 맺음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대졸 청년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고용형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집단보다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3 참조).

〈표 13〉 분석결과 요약

연구가설	결과
가설 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은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3.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직장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프로그램의 참여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전병유 외, 2012; 정영현·임희정, 2013).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대체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취업정보와 상담 및 알선 등도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상당수 청년들이 단계마다 지급받는 수당 때문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참여하는 동안 단계별로 제공받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FGI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프로그램의 참여가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병희 외 2016). 이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기인할 수도 있고, 노동시장분절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을 일선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하여 행정력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과 선발보다는 상담과 알선에 집중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하여 수당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이 목적인 청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한편,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과 위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증가하였으며, Atkinson(1984)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1차 노동시장(core labor market)이 축소되고 2차 노동시장(periphery labor market)이 확장되는 현상을 보여 왔

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정규직 해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기업은 사업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핵심사업이 아닌 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왔다.

문제는 De Lange et al.(2014)의 지적처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받고도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는 더욱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상담과 훈련에 그치게 될 경우, 참여자는 여전히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청년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훈련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전의 공교육 단계에서 노동시장의 수요가 반영되고 산업변화에 부합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2016년 조사된 대졸자이동경로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는 횡단면 분석 자료로서 특정년도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국가수준의 사고, 경제적 상황변화, 정책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사용한 대졸자이동경로조사의 조사는 대학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므로 그 사이에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졸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상에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향점수매칭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해 설정하였으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 내 변수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특성에서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변수의 구성에 있어 대학순위에 연속변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범주변수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특성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표본 수가 축소되는 문제

가 있어 학교의 유형에서 전문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는 한편, 대학순위에서 전문대를 40위권 밖의 대학으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특성이 취업과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획득된 대학명 정보를 활용하여 추후 대학의 특성만을 가지고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될 경우, 청년고용 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영(2012). 「노동시장에서의 대학 교육과 임금 프리미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18). 『고용노동백서』.
- 금재호(2001).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덕호(2019). 「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 「대졸 청년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성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3): 1~37.
- \_\_\_\_\_ (2019).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2019년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발제문. 한국고용정보원.
- 김상욱·유홍준(2002).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행태학적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1): 51~81.
- 김성훈(2007). 「계급이 일자리 이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40(1): 141~165.
- 김종성(201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계층화에 관한 연구: 사회계층별 부모의 개입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성·이병훈(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90: 296~330.

- 김창환·김형석(2006).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직업노동시장 성과: 이공계 위기의 노동시장 원인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1~27.
- 김태홍·김종숙(2002).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 이행 실태 와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희삼·이삼호(2007).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 정책연구 시리즈 2007~08. 『한국개발연구원』.
- 남기곤(2009). 「노동시장: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 결정요인 및 낙인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5(2): 99~125.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 분석: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9(1): 171~196.
- 민현주·임희정(2009). 「여성일자리 이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환보(2011). 「대졸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과 대학 특성의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117~139.
- \_\_\_\_\_(2012).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에 관한 연구: 대학유형과 전공계열별 대졸자 임금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pp.13~160.
- 방하남·김기현(2001).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방하남·김상욱(2009).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결정요인과 구조분석」. 『한국사회학』 43(1): 56~88.
- 방하남·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1): 93~126.
- 배화숙·이인숙(2008). 「비정규직 유형별 일자리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34: 191~23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송영남(2010).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4(4): 209~233.
- 신종각·이주현·오세미·김주희(2017).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 87~118.
- 유동형·민현주(2012). 「대학 전공계열과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성과분석: 예체능 계열과 다른 계열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논총』 27: 149~182.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 연구』 3(2): 69~93.
- 이병희·길현중·김혜원·박혁(2014).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 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길현중·김혜원·이영수·오민홍(2016).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성과 평가분석 및 개편방안 마련』.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김혜원·길현중·오민홍(2017).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시균·윤정향(2008). 「청년층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실증 연구」. 『산업노동연구』 14(2): 59~94.
- 이영면(2005). 「비정규직의 이직의사와 이직행위에 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13(1): 35~63. 한국인사·조직학회.
- 이자영·연보라(2012).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4): 199~226.
- 이주호·김선용·김승보(2003). 「한국대학의 서열과 경쟁」. 『경제학연구』 51(2): 5~36.
- 이현성(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1(2): 47~84.
- 장기영(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병유·김혜원·김용주·이병희·최형재·황덕순(2012).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영현·임희정(2013). 「취업성공패키지 효과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7(1):

1~28.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 (4) : 35~61.

채창균 ·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 (2) : 89~107.

최문경 · 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한국직업개발연구』 11 (3) : 23~48.

통계청(2018).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황여정 ·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 (2) : 1~23.

Acemoglu, D. and J. S. Pischke(1999). “Beyond Becker: training in imperfect labour markets.” *The economic journal* 109 (453) : 112~142.

Atkinson, J.(1984). “Manpower strategies for flexible organisations.” *Personnel Management* 16 (8) : 28~31.

Campbell, D. T. and J. C. Stanley(1963).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Clark, A. E.(1998). “Measures of job satisfaction: What makes a good job?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34.

De Lange, M., M. Gesthuizen, and M. H. Wolbers(2014). “Youth labour market integration across Europe: The impact of cyclical,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European Societies* 16 (2) : 194~212.

Donna, B.(2007). “The gender income gap and role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80 : 1~22.

Finegold, D., A. Levenson, and M. Van Buren(2005). “Access to training and its impact on temporary work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15 (2) : 66~85.

ILO(2015). “What works in wage subsidies for young people: A review of



- issues, theory, policies and evidence.” Working Paper No. 199.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https://www.ilo.org/employment/Whatwedo/Publications/working-papers/WCMS\\_466538/lang-en/index.htm](https://www.ilo.org/employment/Whatwedo/Publications/working-papers/WCMS_466538/lang-en/index.htm).
- Jencks, C., L. Perman and L. Rainwater(1988). “What is a good job? A new measure of labor-market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6) : 1322~1357.
- Kim, Y.(2013). “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Funded Job Program in Korea.” *KDI Policy Study* 19 : 1~43.
- Koske, I., J. Fournier and I. Wanner(2012). “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Are they compatible? Part 2. the distribution of labour incom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25.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2975rhhf-en>.
- Lin, N., W. M. Ensel and J. C. Vaughn(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4) : 393~405.
- Lynch, L. M.(1989). “The youth labor market in the eighties :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probabilities for young men and women.”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71 (1) : 37~45.
- Marcotte, D. E.(2000). “Continuing education, job training and the growth of earnings inequality.” *Industrial and Labour Relations Review* 53 : 602~623.
- Moen, P. and R. Smith(1986). “Women at work: Commitment and behavior over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Forum*, pp.24~38.
- OECD(2014). “Promoting better labor market outcomes for youth.” Report on youth employment and apprenticeships prepared for the G20 Labour and 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 Melbourne : Australia. <https://www.oecd.org/g20/topics/employment-and-social-policy/OECD-ILO-Youth-Apprenticeships-G20.pdf>
- Rosenbaum, P. R. and D. B. Rubin(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1) :

41~55.

Schmid, G.(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SSOAR Discussion Paper.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 1~17.

Sewell, W. H. and R. M. Hauser(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Sharma, S., R. Durand. and Oded. Gur-Arie(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 : 291~300.

Spencer, A. M.(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3) : 355~374.

abstract

---

##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for Youth in Korea

Kim Dug-Ho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chances of employment, which is a quantitative indicator of employment. This is because participant's willingness to find jobs is high and private agencies tend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ir placement rate to ensure commissioning of the program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 quality of jobs such as employment type and wage level has been poor due to poor quality of programs and irrelevant job matching under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ntensifi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participants are not likely to be able to escape from the secondary labor market i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does not provide in-depth counseling and training.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innovate the Program so that participants can design their career path in the longer term.

Keywords : employment success package, labor market policy, in-depth counseling,  
vocational training